



제 83 호

경상북도 의회소식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열린의정구현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2014. 7. (제270회 임시회)



울진군 금강소나무 숲길

제270회 임시회

수준 높은 의정활동 통해 유종의 미 장식

제9대 경북도의회 마지막 회기, 민생관련 조례안 처리



제9대 경상북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시하)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경상북도의회 마지막 회기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민생관련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최종 마무리 했다.

제270회 임시회 첫날인 6월 10일 오후2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

의를 개최하고,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은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민생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6월 19일 오전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민생관련 각종 안건 총25건을 처리했다. 🏠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의원 기본자세와 청렴의무 행동기준 마련

경상북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 6월 1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경상북도의회에서 제정하여 통과시킨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통과되었는데,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조례로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희수)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되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인사청탁 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타 기관단체 지원의 국내외 활동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등 도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을 여러가지 담고 있다.

이번에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도민이 바라는 의원의 기본자세와 청렴의무를 다시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의회의 자정선언 의미가 담긴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며 활기차고 열린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된다. 🏠

Contents

차례

지면안내

화보 울진군 금강소나무 숲길	1면
의정소식 / 의정만평	2~3면
제9대 도의회 총결산 지방자치발전 선도하는 변화의 중심에 큰 역할	4~5면
특별기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6면
상임위원회 활동 / 제9대 도의회 4년 총결산 의회운영 · 기획경제 · 행정보건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위원회 활동	7~13면
제270회 임시회 주요처리안건 소개 5분 자유발언 / 이상호 · 이왕식 의원 건강칼럼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정시문 시문정신건강병원 이사장	14~15면

제9대 경상북도의회 폐회, 의장 인터뷰

I n t e r v i e w



이시하 경상북도의회 의장

“민생안정 위한 의정활동 역점”

제9대 도의회 4년 성과는?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보다는 정책대안을 찾아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는 300만 경북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지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경북도정을 견제와 질책 보다는 정책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경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수나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수준 높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었습니다.

제9대 도의회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하여왔으며, 특히 도민의 관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서민경제, 독도수호 등 8개 특별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전국에서 모범적인 자치의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발의와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경북도정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개발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경북의 발전을 위해 서민 민생안정,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정만평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 이시하 기획·편집 | 임현성, 남정해
편집인 | 이태암 발행처 |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제9대 경북도의회 임기만료 행사 가져

“소통과 화합, 열린의회 실현 위해 열정 바쳐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

경상북도의회는 6월 19일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본회의장 앞 로비에서 이시하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권기선 경북지방경찰청장, 경북도 및 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경상북도의회 임기만료 행사를 가졌다.

본회의 폐회 직후 가진 제9대 도의회 임기만료 행사에서 그동안 도정 및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의원 상호간의 노고를 자축하고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제9대 도의원 전원을 비롯한 경북도 집행부 간부 위주로 겸소하게 행사가 치러졌다.

이시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송별사에서 “도민의 기대와 여망속에 출범한 제9대 경상북도의회 4년간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 하는 오늘, 임기만료 자축연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뜨거운 열정으로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에 변함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300만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



해 우리 도의회와 동반자로서 함께 동행해 주신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에 출범하는 제10대 경상북도의

회는 완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개도 700년 신도청이전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미래경북 100년 대계를 꽃피워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지출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 면밀히 파악, 결산검사 최선 다해

경상북도의회는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운영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지원청은 5월 8일 부터 14일까지(7일간), 도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는 5월 15부터 27일까지(13일간) 실시했다.

결산검사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서류심사, 현지 출장 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적법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결산검사를 통한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등을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난 3월 20일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박진현, 이경임, 김원석 도의원 3명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과 회계·재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전직공무원 2명 등 총 9명이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이, 간사에는 행정정보복지위원회 이경임 의원이 선출되었다.

박진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지출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민의 혈세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절하게 평성하여 집행 되었는지의 여부에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라고 밝혔다. 🏠



의회사무처 소식

의회사무처 자위소방대와 무태119 안전센터 합동소방훈련 실시



경상북도의회사무처(사무처장 : 이태암)는 6월 2일(월) 오후2시 도의회 청사에서 소속직원들로 조직된 자위소방대와 무태119 안전센터 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

제13회 Mini 민의의 전당 일상 속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교육



경상북도의회사무처(사무처장 : 이태암)는 5월 28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은희 강사를 초청하여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제13회 Mini 민의의 전당’을 개최했다. 🏠

경상북도의회, 제9대 도의회 총결산(4년)

제9대 의정활동 추진실적

- 회기운영 : 30회, 497일(정례회-8회 225일, 임시회-22회 272일)
- 도정질문 : 28회, 79명, 343건
- 5분 자유발언 : 106회, 106명, 106건
- 의안처리 : 574건(조례안 359건, 예·결산안 29건, 결의·건의안 40건, 동의·승인안 45건, 기타안 93건, 규칙안 6건, 청원 2건)
- ※ 의원 및 위원회 조례안·건의안 발의 안건 : 176건 (제8대 도의회 : 76건)
- 도정현안사항 신속대처 ⇒ 8개 특별위원회 운영
 - 예산결산·윤리·서민경제·독도수호·도청이전 지원·경북대구상생발전·지방분권추진·남부권 신공항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 의원 입법 및 정책대안개발(입법조례 지원 : 89건)
 - 의원연구단체 운영(균형발전·사회안전망·입법발전·자연공원생태 연구회)
- 행정사무감사
 - 4회, 287개 기관, 시정처리 및 건의 촉구 1,036건
- 민원처리 : 124건 처리
- 상임위원회 현지확인 활동 : 140회, 354개소
 - 상임위 간담회·공청회 : 87회



제9대 전반기 본회의(독도에서)

지방자치발전 선도하는 300만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주는

집행부 견제 감시·감독, 도민 복지증진에 역점 ·도민 작은 목소리 크게 듣고, 현지확인 역점

제9대 경상북도의회(2010. 7. 1~2014. 6. 30)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하여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 경북도의회는 경북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는 평가속에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활동과 시의성 있는 현지활동, 의정연구 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평가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에는 총 28회 79명의 의원이 343건에 대해 심도있는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제9대 의정활동을 통해 총 30회 479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574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조례안 359건, 예·결산안 29건, 결의·건의안 40건, 동의·승인안 45건, 기타안 93건, 규칙안 6건, 청원 2건을 처리했다.

또한 10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전·한수원 통합 관련, 구제역 사태와 경북축산, 지역 국비예산 정치적 왜곡 호도 시정촉구,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집행부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4년간의 의정활동은 경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도민의 작은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지방정치를 알차게 이끌어 성숙한 자치풍토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

제9대 경상북도의회 개원





제9대 하반기 본회의

변화의 중심에 큰 역할

현장위주 ‘소통중심 의회’ 운영

지역발전 현안 해결 위해 특별위원회 운영

경상북도의회 제9대 도의회 4년간은 도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규제개혁, 제도개선의 노력과 함께, 4기에 걸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확보 노력 등 예산·결산 심사활동에 진력했다.

한편,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출신지역을 떠나 전체 도의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히 대응해 왔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 왔다.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의원입법 정책대안 개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현 의원)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의회차원의 다양한 정책연구를 해 왔다.

‘정책연구위원회’ 장세현 위원장 등 19명은 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과제와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우수 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했다. 의원발의 등 조례제정 지원에도 법률적 자문 등 89건을 지원했다.

의원연구단체는 4개 단체 55명으로, ‘균형발전연구회’ 박진현 대표 등 13명은 혁신도시 성공과 창조도시의 시시점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사회안전망연구회’ 박기진 대표 등 18명은 가정폭력의 현주소와 효과적인 예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임업발전연구회’ 김기홍 대표 등 13명은 산림 관련 조례제정으로 효율적인 산림정책 수립에 대한 세미나, ‘자연공원생태연구회’ 서정숙 대표 등 11명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방향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연구활동에 열정을 보였다. 🏡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지난 6월 4일의 제 6차 지방선거는 국민 모두가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각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과 지방선거를 연결하여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유럽 중세 봉건제도의 도시자치권에서 발전하여 구미의 선진국들에게 뿌리 내려진 것은 잘 알려진 사항이다.

현 시대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대정치체제 이전에

스럽게 중앙집권이 강화되어지는 통치의 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지방자치가 더욱 중요하다. 현 시대의 지방자치는 정치적 분권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면의 생활 방식 구축구축에까지 적용되는 단계를 넘어서, 자치의 실용화 및 효율성 확대를 주요 관건으로 삼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용화 및 효율성 확대가 2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제 분야의 각 산업체, 사회·문

립·운영하기 위한 투자이행이 요망된다.

산·학·연의 연계는 구호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젊은이들은 취업할 곳을 찾고 있으며, 산업체들은 쓸 만한 인력을 찾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많은 연구 결과들을 산출하지만, 활용하는 곳들이 없다보니 차기 연구를 지속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인력과 연구결과, 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것은 늘 있어왔던 것이지만, 이를 방지하면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떨어져 결국은 지역요소들의 생산성·효율성·유기적 협력 등이 떨어져서 지역의 경쟁력이 약해 질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청취하고, 산·학·연 및 지역의 단체와 주민과의 연계에 시간과 자본과, 인력을 과감히 투자하여, 지역경쟁력 회복의 물꼬 터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대구·경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학·연 및 지역단체와 주민과 연계하여 시간과 자본, 인력 등 과감히 투자해야

도 지방자치적인 통치체제가 역사 속에 많이 있던 국가들에 해당된다.

서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만 하더라도 명치유신 이전의 막부 통치체제 이전부터 상당부분 지방의 자치적 통치가 허용되어 일본의 봉건제라고도 일컬어지는 통치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익숙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중앙집권이 형성된 이래로 오랜 동안 국가중심의 집권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자치를 이행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통치 전통과 제도운영의 방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 시행 후 20여 년 밖에 지나지 않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자치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혼란은 당연히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 하겠다.

후기 산업사회라고도 일컬어지는 정보사회에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신속한 정보 흐름으로 인하여, 사회체제를 가만히 방치하면 자연

화 분야의 각종 단체들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섹터인 비영리단체, 문화를 위한 기관들과 자원봉사 및 자발적 단체들의 모든 활동과 산출 서비스들에까지 적용되어지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들은 수도권의 경제·사회·문화에 쫓겨나고 의존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 산업체, 교육연구기관, 기타 제3섹터들과, 주민 등의 요소들 간의 결합을 효율적으로 작동시켜 각 요소들의 산출물 흐름을 원활히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요소들의 핵심적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빠른 정보의 교류, 합의된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등이 주요하며, 대구·경북의 지방자치가 지역 내 생산요소들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용적이며 효율성이 높은 산·학·연의 연계를 설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제9대 의회 마무리 및 제10대 도의회 개원, 완벽한 준비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도민이 행복한 경북 만들기에 최선

제10대 도의회의 원활한 원구성에 대비 ‘위원회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6월 10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 ‘경상북도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하여 원안 의결했다.

처리 안건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9대 의회에 한시 적용하였던 교육의원제도가 2014. 6. 30자로 일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위원회 명칭과 기능을 현행과 같이 존치시키는 한편, 교육의원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10대 도의회 의원정수가 63개 의석에서 60개 의석으로 감소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9명 이상 11명 이내로 개정하는 등 새로이 출범하는 제10대 도의회의 원활한 원구성에 대비하여 제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의정회 보조금 지원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법 소지가 있어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했다.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개최된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김희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과 제9대 도의회 임기만료 행사추진 및 제10대 도의회 개원식 준비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사전조율하여 각 해당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토록 협의함과 아울러 제9대 도의회의 원활한 마무리, 제10대 도의회의 차질 없는 개원준비와 발전방향 모색 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했다. 🏠

제9대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실적

희망·용기 주는 생산적·역동적인 의정활동 펼쳐

의회운영위원회는 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부위원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도의회 운영관련 일반행정업무와 안건심사, 입법활동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 간의 의정활동을 조율·지원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지난 4년간 ‘3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정’, ‘정책연구 및 입법기능 강화’, ‘민주적 소통 중심의 의회운영’을 역점과제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그 간의 주요성과를 보면, 의정활동의 잘못된 관행과 비합리적인 관습을 탈피하여 지방의회가 지향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의회운영의 기초를 마련했다.

3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친서민적 조례제정의 방향 제시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활동보좌역량 및 정책연구 및 입법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였으며, 경북도의 주요 현안들을 의회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보완·추진하고 의

정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연석회의를 정례화 함으로써 현안과제를 집중점검하고 각 상임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토록하는 의회시스템화의 기틀을 만들었다.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청렴한 의회풍토 조성을 위한 자정결의를 대외에 표명하였고 경상북도의회가 더욱 신뢰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제9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실적으로 회의개회는 40일, 조례·예산·결산·승인 등 11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현지활동 5회 5개소, 각종 간담회·공청회 31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의회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1·2.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3.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

기획경제위원회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생산적이고 효율적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 거둬 마지막 까지 도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조례안 등 현안사항 심사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제270회 임시회를 맞아 6월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대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의결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청 이전을 앞두고 동해안권의 행정 기능 보강 등을 고려하여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동해안발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무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 추진" 업무를 이관·조정하고자 개정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업무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규제개혁추진단 등에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과세목적에 맞게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수입과 지출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연구와 창의적인 관광지 개발현황을 벤치마킹하고자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지 확인에서는 풍기인삼시장, 춘천중앙시장, 춘천 닭갈비시장, 김유정 문학촌 등을 방문하였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 위치한 풍기인삼시장 방문에서는 시장 상인회 및 입주 상인들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마지막까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김유정 문학촌 방문시에는 김유정의 첫사랑이 우리지역 대표 명창인 국악인 박록주라는 사실에 놀라며, 김유정과 박록주를 연계하는 관광 상품개발에 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박진현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이번 현지 확인에서 보고 들은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는 등 제9대 경상북도의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보였다. 🍀



제9대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실적

서민의 아픔을 함께한 4년간 의정활동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 도정 기획·조정,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도정 홍보활동, 재래시장 활성화, 원활한 교통대책의 수립, 벤처기업·테크노파크 육성,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개척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제9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는 장경식 위원장, 황이주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세호, 김희수, 도기욱, 박성만, 박진현, 윤창욱, 정영길, 황상조, 한혜련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는 박진현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말분, 김봉교, 김세호, 김영기, 김영식, 김종천, 김하수, 김희수, 장세현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9대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최는 61일 23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조례가 72건, 예산·결산 90건, 기타 69건을 처리했다. 또한, 현지 확인 16회 73개소, 도정질문 13회 91건, 5분 자유발언 22회 등으로 4년간 기획경제위원들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착실히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립, 동북아사무국 준치, 제4세대 방사능가속기 건립, 울릉도 녹색섬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과 동시에 주민들과의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기도 하였다. 실라리안 브랜드 경쟁력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13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열정을 보였다.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은 "서민의 아픔을 함께한 4년간의 의정활동이었다."자평하고, "주민과 늘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려 노력하였지만,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은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

1. 풍기인삼시장 현지확인
2.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
3. 영해시장 현지확인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조례안 심의 및 안동·예천 행정구역 변경 의견 청취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정활동에 끝까지 전력 쏟아 부어



조례안 등 현안사항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6월 10일에 제9대 마지막 회기인 제270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심의·의결했다.

그 밖에 도청 이전에 따라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지원 대상을 도청이전 신도시 및 안동시·예천군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인 ‘경상북도 주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 인근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심의를 유보하였다.

또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신도시 조성사업지구가 양시·군(안동시, 예천군)에 걸쳐 있어 행정지원화에 따른 각종 공공시설물의 관리 혼선, 주민불편 해소, 인·허가 분쟁예방 등을 위해 경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찬성 의견으로 채택 하였으며,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현장 방문 실시, 의정활동 마무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건 심의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강원도내 우수 아동복지시설인 원주아동센터와 민생현장인 정선아리랑시장 등의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제9대 의회 상임위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채옥주 위원장은 “9대 후반기 상임위의 원활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

- 1. 아동복지시설 현지방문
- 2.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면
- 3. 도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제9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실적

신뢰받는 행정실현,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

제9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실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9대 전반기 의정활동에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와 체감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삭감하는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의회 본래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심사 강화, 독립대학 취업률 제고 대책 강구, 교육 운영 활성화 등을 지적하고, 독립의료원의 경영혁신 계획을 점검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지확인을 통해서는 구미 죽향원터의 다문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책 강구, 봉화 어린이집 노후화에 따른 신축,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확보, 의성 안사공동체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지원방안 마련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도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9대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사회 여건속에서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힘써 도민 행복지수가 향상되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의정 중점 활동으로 각종 시책 및 정책 추진의 법적 뒷받침 역할인 조례 제·개정에 역점을 두어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을 의원입법 발의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했다

제9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00일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224건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 중 조례 99건, 업무보고 31건, 예산안 심사 60건, 결산 21건, 승인 11건, 간담회 및 의견청취 2건을 처리하였다. 🏠

문화환경위원회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조례안 심사 및 현장 방문 등 마지막까지 활발한 의정활동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 등 2건, 생태관광자원 실태 확인·점검

현장방문 등 조례안 심사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기진)는 제270회 임시회 기간중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과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와 산림생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방문 등으로 제9대 마지막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6월 10일 본회의 종료후 곧바로 시작된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는 기존 ‘문화재보호법’

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규정에 맞도록 보완·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문

화재 보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지정·인정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하였고,

기·예능을 공개토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 금연·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을 신설하였다. 또, 도지정문화재의 현상과 수리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도록 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위원장은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원회는 16일(월) 영주 소백산 일원에 조성중인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최고의 산림치유지역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안전사고 예방도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 횡성의 산림치유시설인 ‘숲체원’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도내 기존 휴양림과 시설의 경영개선에 접목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참석위원들은 상임위 활동 마지막까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



1

제9대 문화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실적

도민 ‘문화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 위해 현장 위주 의정활동

제9대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4년간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뜻을 담아 집행부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현장 위주의 생동감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도민 행복 실현에 큰 기여를 했다.

주요 성과로는, ‘칠곡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구미 불산가스 누출’,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환경오염현장 점검 활동과 철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특히,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결의안 채택’으로 지역의 안전한 식수확보에도 앞장섰다.

또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 ‘경주월정교 복원’ 등 21세기 경북문화의 세계화와 브랜드 가치 향상, 문화격차 해소 및 역사·문화자원 기반구축을 위해 상임위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경북도민체육대회’, ‘전국 생활체육 대축

전’ 및 ‘전국체육대회’ 등 지역 체육활성화에도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특히,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 ‘독도 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며 독도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 조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주요 입법활동으로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23건을 포함한 전체 38건의 민생 관련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4회에 걸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41회의 예산·결산 심사 등 효율적 도정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사안별 깊이있는 심사활동을 벌였으며, 회의개최 61일, 각종 의안처리 120건, 현지활동 65개소, 간담회 14회, 도정질문 14회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반영한 현장위주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

1.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사업현장 방문
2. 강원도 횡성 ‘숲체원’ 시설 방문
3. 임산버섯이용 신약후보물질 개발연구 포스코 현지 확인



2



3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공급 체계 강조 환동해안시대 어업의 신소득개발 보급과 6차 산업 노력

우박피해 발생 대책상황보고, 조례안 심사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6월 10일 제 270회 임시회에서 지난 5월 28일 포항시 등 도 내 9개 시군에서 발생한 농작물 우박피해 및 대책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당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먼저 우박피해 발생 및 대책상황 보고에서 위원들은 우박 피해 현황과 대책추진상황, 지원계획 등을 듣고 피해농작물의 보험가입실태 및 지원방안 등을 질의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도 안타까움의 표시와 함께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원으로 영농에 조기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검사 수수료 검토 등 전반적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고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등 현지 확인

농수산위원회는 제270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월 16부터 17일까지(2일간), 포항지역의



농수축산물 공급체계기반의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를 방문, 현황 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에서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등 지역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에서는 수산 질병관리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 수산 소득원 개발 및 보급, 수산 전문인력 육성 등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았으며, 위원들은 특히 수산물 안전검사 전문인력 확보와 어업의 6차 산업과 어패류 등의 어촌계 직판사업 도입 등을 당부했다. 🏠

제9대 농수산위원회 의정활동 실적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제9대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4년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고, 다국간 FTA 개방화, 고령화 시대에 농어업인들의 아픔을 현장에서 함께 하며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고자 꾸준히 연구하고 농어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주요 성과로는 조례안 32건, 예산안 32건, 결산안 7건, 건의안·결의안 5건, 기타 안건 34건 등 총 1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4회 15개 기관, 의원입법발의 28건, 건의·결의안 발의 6건, 도정질문 10회, 5분자유발언 13회, 현지 확인 24회 53개소, 타 시도의회 방문 1회, 농업인단체 등 간담회 20회 실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민들의 애로사항 청취·해결에 적극 노력했다.

입법 활동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농어업인 대상 조례안,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농수산위원회의 제안으로 발의하여 농수산물의 수출진흥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 '발농업직불제 대상품목 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촉구 결의안' 등 중요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특히 현지 활동으로는 구제역·AI 등 가축 질병과 태풍·폭설·적조·우박·한해 등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와 대책수립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많은 농가와 사업체의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도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진솔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



1. 포항 학교급식 지원센터 현지 확인
2. 농수산위원회 우박피해 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사
3. 축산기술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설소방위원회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개도700년 신도청 새천년 비상! 지역균형발전 신성장 거점 마련 도민의 안전과 사각없는 복지 위한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세월호 사태 등과 관련, 대형재난 대응태세 현장점검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옥)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대처 시스템의 부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6.11과 12일 양일간 포항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장, 영덕 로하스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 영덕소방서를 찾아 안전관리실태와 공사 추진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하는 등 9대 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소홀함이 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6.11일에는 포항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시하 도의장, 이지역 출신 이정호 도의원 등과 함께 그간 공사 진척상황 보고를 받고 위원들은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관리자 안전의식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로하스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 점검했다.

6.12일에는 소방안전 및 재난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영덕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업무보고 및 현황사항 등을 보고 받고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사태 등과 관련하여 재난

현장 지휘체계 확립, 대형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 방법 및 준비태세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개진과 함께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대형공사장 및 다중시설 등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철저히 안전점검 실시토록 하고 재난시 신속한 대응체계 및 시스템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

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10일에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 그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논의가 됐던 문제점들을 종합,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원안가결했다.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 경과 가산금 요율을 당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중복 위촉에 따른 부패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건축 조례' 개정과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 중 거주자의 안전, 위험 등의 포괄적인 사항을 매연·소음 등으로 구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을 개정했다. 🏠

제9대 건설소방위원회 의정활동 실적

도민이 행복한 경북실현 위해 온힘 쏟은 의정활동

제9대 건설소방위원회는 '현장이 답을 준다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목표로 맞춤형 지역개발, 도민이 행복한 경북실현을 위해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건설소방위원회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전반기에는 7백리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가뭄극복,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의 녹색인프라를 구축하여 '신낙동강시대'를 열어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했다.

그뿐만 아니라 동남권신국제공항 유치 추진, 울릉일주도로 완전개통 착공, 김천혁신도시, 신도청이전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에 대해 대안마련 및 애로사항 등을 풀어가면서 해결했다.

후반기에는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 연장, 남부권신공항 유치 추진, 도청이전 명품신도시조성의 차질없는 추진, 남부권 신공항 건설

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김천혁신도시 공사 마무리 등 경북발전의 확고한 기반마련을 위해 현장밀착 의정활동에 온힘을 쏟았다.

특히, 지역건설업계, 의용소방대연합회 등의 현장 정책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방안 등 정책대안을 도정에 제시하고 살아있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했다.

제9대 건설소방위원회 회의개최는 71일, 12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조례가 35건, 예결산은 56건, 기타 37건을 처리하였으며, 조례안중 의원발의 조례는 21건으로 60%를 차지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쳤다. 도로건설사업장, 재해위험지구 등 23회 46개소를 현장방문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재확인하여 지적사항이 완벽하게 시정될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치중했다. 🏠



1. 포항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건설현장 방문
2. 영덕소방서 업무보고 및 간담회
3.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안 심사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현실화 되지 않은 조항 수정 등 복무에 관한 기준 명확화 등 미래지향적 유아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현장견학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현안사항 심사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6월 13일에 제 27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출장후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도록 현실화' 했다.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신설과 현실화 되지 않은 조항은 수정하여 조례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상북도교육감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감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전보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수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9대 도의회 하반기 교육위원회 임기 동안 도민의 삶의 수준 향상과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한다"고 말하며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이번 회기동안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에 이어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하는 현장의정 활동도 병행했다.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지의자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업무브리핑을 받고 강원도만

의 특색 있는 유아교육정책과 단설유치원현황, 체험시설현황 등 다양한 질의와 응답을 이어갔다.

브리핑을 마친 위원들은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된 '도담체험관'을 견학하며 자연탐구영역과 신체운동·건강영역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체험관을 견학한 위원들은 한결같이 "체험학습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으며, 인격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체험학습의 장점"이라 말하며 "유아기의 생활습관 형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도 체험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제9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실적

명품 경북교육, 성숙한 교육자치 실현에 앞장서기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향상'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경북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명품 경북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제9대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14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시책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등 교육관련 일체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교장 공모제 개선, 직속기관 교사 파견역제,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독려, 관사(관용차) 지원 제도 개선 등 시정 29건, 건의·촉구 105건을 지적하는 등 활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였다.

학교비위와 관련된 사립학교법인의 재단이사장과 학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의회상을 정립한 사항과 국정감사에서와 같은 발언시간 체크기를 도

입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은 물론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고, 일선 학교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케하여 일선학교와 의회와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였다.

또한,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 대상학교 등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독도사랑" 및 "역사 바로 세우기"에 실천하기 위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현장 방문하였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지도자의 역사적 망언을 규탄하고, 학생들의 역사의식 부족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교육위원회가 앞장서 실천하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위원들은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경비대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역사교육 강화'를 촉구하고, '독도사랑, 역사 바로 세우기'에 교육위원회가 앞장서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다. 🏠

- 1.2. 강원유아교육진흥원 현장 방문
- 3.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





제270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5. 30
- 제안이유 : 도청이전을 앞두고 동해안권의 행정 기능 보강 등을 고려하여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동해안발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4급)’이 신설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소관사무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 추진” 업무를 이관·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한 것이다.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5. 30
- 제안이유 :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업무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인력과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업무 전담인력을 확보, 정보보안 기능강화, 주거복지 급여체계 개편 등 정부의 인력보강 지침에 의하여 필수 불가결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다.

▶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5. 30
-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2014. 1. 1부터 도세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수입과 지출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다.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5. 30
- 제안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5. 30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

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5. 30
- 제안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2013. 12. 12.)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정무부지사의 임용 자격기준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5. 30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2011. 5. 23.)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5. 30
- 제안이유 : ‘기초노령연금법’ 폐지 및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라 제명 및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5. 30
- 제안이유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변경키 위한 것이다.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5. 30
- 제안이유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금연·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동물치료소 지정,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법령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4. 5. 30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합치되고 있지 않은 경조사별 휴가 일수 내용 보완, 그 밖의 상위 법령에 따른 일부 조항 신설, 현실화되지 않은 일부 조항 수정 등을 통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내외적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4. 5. 30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 12. 11. 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4915호, 2013.12.12. 시행)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13.11.20. 제정된 ‘지방전문경력관규정’(대통령령 제24855호, 2013.12.12. 시행)에서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4. 5. 30
-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2128호, 2013. 12.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4. 5. 30
- 제안이유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4. 5. 30
- 제안이유 : 김천 경북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학생

5분 자유발언

나를 버릴 때 지역 위한 진정한 정치인 되는 것

4선 도의원을 지낸 이상호 의원은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원들은 자신을 버릴 때 진정한 지역을 위한 정치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높여나가야 하는 도의원으로서 대의에 충실한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후배의원들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무릇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아픈 기억과 갈등을 모두 잊고 이제 화합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년간 부의장, 의장 등을 역임하며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마치게 된 것은 도민과 동료의원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상호 의원(경주2)

도의원들의 말 한마디는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 대변

경북은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대부분이 집권여당 소속이다 보니 정책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조직의 활력을 위해 적당한 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경북이 영원히 2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1류로 재도약할 것인가를 앞으로 4년이 판가름 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항상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정책집행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도 집행부의 모든 정책 찬성, 모든 의안의 일사천리 원안 통과 등은 앞으로 지양할 바로, 다양한 정책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식 의원(의성)

수용을 위하여 인근 중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같은 개발지구 내로 이전하는 중학교와 단성에서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4. 5. 30
-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 및 규칙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4. 5. 30
- 제안이유 : 경상북도 고시 제2010-168호(2010. 5. 4 :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경상북도 고시 제2012-62호(2012. 2. 29 : 개발계획 승인)로 고시되어 경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개발사업 지구(10.966km²) 개발은 안동·예천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신도시 조성사업지구가 양 시·군(안동시, 예천군)에 걸쳐 있어 행정이원화에 따른 각종 시설물 관리에 혼선이 예상되는 바, 주민불편 해소, 각종 인허가에 따른 자치단체간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각각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계변경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을 건의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2014. 6. 11
- 제안이유 : 2014년 6월 30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의원제가 일몰되나 기존의 '교육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각 상임

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제10대 도의회 의원정수에 기초한 적정 인원수로 개정하는 등, 제10대 도의회 원구성에 대비하여 제반 근거 규정을 새로이 갖추기 위한 것이다.

▶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2014. 6. 11
- 제안이유 : 현행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의 보조금 지원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대법원(2012주176, '13. 5. 23.)이 무효 결정함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2014. 6. 11
-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이다.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2014. 6. 11
-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교육의원 일몰제('14. 6. 30)에 따라 회의규칙 제2조(등록)의 "교육의원"을 삭제하고 조문 내용 일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회 2014. 6. 10
- 제안이유 :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

착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회 2014. 6. 10
- 제안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의 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요율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당초 : 부담금액의 100분의 5 → 변경 : 100분의 3)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회 2014. 6. 10
- 제안이유 : 건축법에 따른 경상북도 건축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정비 및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및 반복심의 횟수 제한,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효율적인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회 2014. 6. 10
- 제안이유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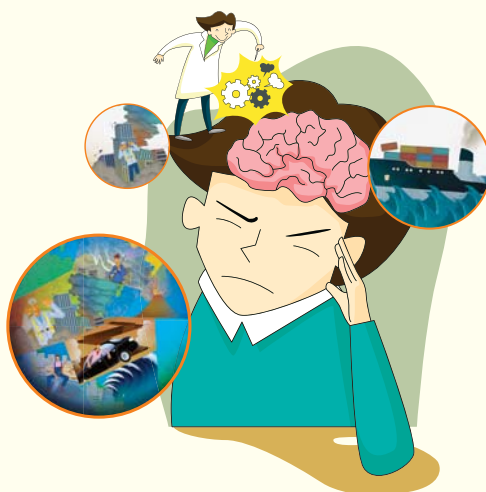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세월호 등 대형참사 트라우마 증상



시, 생각, 해리를 통한 경험, ③ 외상에 대한 회피 또는 무감각 - 외상 관련된 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장소를 피함, 외상 관련된 일이 기억나지 않음. 감각의 저하, 의욕 저하 등, ④ 각성 상태의 증가 - 수면 장애, 짜증 분노 증가, 집중력 저하, 자주 놀람 등이 있다.

외상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하는데 치료

받지 않으면 30%의 환자는 스스로 증상이 호전되고, 나머지는 증상이 악화되거나 악화, 호전을 반복한다.

PTSD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정신장애가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약물적으로도 치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심리적 치료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정신적 지지가 가장 큰 치료제라 할 수 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환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환자 본인이 나쁜 기억과 감정을 감추지 않고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친구나 가족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PTSD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정신장애가 신경 계통의 화학적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물복용이야말로 이러한 화학적 균형의 정상화에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항우울제 등을 투여하면 재경험, 회피증상, 충동 조절 등이 개선되고 우울증과 무기력증도 크게 완화되어 환자의 정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 수습이 끝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정신건강 체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시몬정신건강병원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5길 62

☎ 054-976-0403



정시몬 이사장
(시몬정신건강병원)

요즘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을 들어 보신 분이 많을 것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를 의미한다. 환자는 사건을 직접 경험

하거나 목격하고, 이 같은 사건은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험 등을 의미한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등의 사건들로 볼 수 있다. 이때의 사건을 직접 겪었거나 목격을 하고난 이후부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서 아직까지도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

전안할 생존 장병중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판정받고 제대한 경우도 있다. 그 외 실생활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

그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을 알아보면, ① 외상을 경험한 이후 극심한 불안, 공포, 무력감, 고통을 느낌. ② 외상에 대한 재경험 - 악몽, 환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폐회직후 본회의장 앞 로비에서
제19대 경상북도의회 임기만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도민들의 성원과 관심, 진심어린 애정에 지난 4년 행복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 경북!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지역과 국가 발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소외 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참 봉사를 실천해 나가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년, 행복한 경북을 위해 보내주신 도민들의 성원과 관심,
진심어린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